



#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

강화구 박사(Ph.D., 구약학, 고신대학교)

성경 비평학이 일어난 이래 창세기의 역사성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다. 첫째 이유는 창세기 이야기 자체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창세기의 역사성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연대가 주전 4004년이라고 말하거나, 셈의 족보를 기준으로 노아의 홍수가 아브라함 등장 몇백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두 가지 입장은 모두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일은 이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창세기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러니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실제 역사의 어떤 지점에 본문을 대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나 문화는 대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공유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배경을 찾는 일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이자 가장 중요한 접근은 우리의 연구가 성령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사실이다. 창세기는 역사책이 아니다. 역사를 재구성하도록 의도된 것도 아니다. 엄밀하게 창세기는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학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창세기의 역사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창세기는 ‘역사적’이다. 창세기의 등장인물은 진공 속에서 살았던 인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역사적 인물이다. 아담은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어떤 특정한 역사의 무대 위에 살았으며,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지리, 정치적 배경을 공유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각도의 연구를 통해 본문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두 가지 전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진다. 첫째, 역사비평적 전제다. 창세기가 모세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읽기 때문에, 창세기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율리우스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는 없고, 다만 족장들의 이야기는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황금 시대를 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근래에도 여전히 이런 접근은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찾을 때 큰

---

1. 벨하우젠은 족장들의 시대를 Glorified Mirage라고 부른다. 다수의 비평적인 학자들은 창세기의 모세저작권을 부인함과 동시에 창세기가 포로후기에 기록되었기에 아무런 역사적 가치는 없다고 주장한다. Julius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New York: Meridian,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 시터스(John Van Seters)나 토마스 톰슨(Thomas L. Thompson) 등도 벨하우젠이 주장한 것처럼 족장 시대는 주전 2천 년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2</sup> 톰슨은 이렇게 족장시대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주의자들 혹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한다.<sup>3</sup> 물론 창세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이지 않다는 주장 자체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 기록된 내용과 실제 역사 간에 시간적 간격이 적을수록 기록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4</sup>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단정한다 할지라도 창세기의 내용과 모세 시대 사이에는 400년 이상의 간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 시대로 기록 연대를 끌어 올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도전은 고고학적 발견과 고대 근동 문헌 등과 관련된다. 불행하게도 창세기의 이야기는 성경외의 어떤 자료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어떤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평적인 학자들은 창세기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인해 왔다. 반대로, 올브라이트 (W. F. Albright)는 적극적으로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창세기가 주전 2100-

---

1957), 326. R. N. Whybray는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기록된 종교소설 (religious fiction) 이라고 단정 짓는다.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SOTSup 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241.

2. John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그리고 Thomas L. Thompson, *The Historicity of the Patriarchal Narratives: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Abraham*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2).

3. Thompson, *The Historicity of the Patriarchal Narratives*, 327. 동일하게 반 시터스는 면밀한 연구 끝에 족장 시대 이야기는 주전 2천년대가 아니라 주전 1천 년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이안 프로반 외 2인,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김구원 역 (서울: CLC, 2013)의 1부를 참조하라.

1900년대 사이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sup> 결국 고고학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관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습이나 법률 등은 실제 주전 18세기 마리 문서나 주전 15세기 누지 문서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sup>6</sup> 물론 창세기의 연대와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나 관습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반 시터스는 고대의 관습이 반드시 주전 2천년기의 관습이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똑같이 이런 점들을 관찰한 이후에 그는 주전 1천년기의 관습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고고학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 이들은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의 이야기를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한다. 맥스웰 밀러(J. Maxwell Miller)와 존 헤이스(John H. Hayes)가 쓴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7</sup>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관습 등에 대한 탐구는 일정하게 창세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데 일조하지만, 무엇인가를 입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고학적 연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입증하거나, 혹 거부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의 이야기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그 시대에 대해

---

5.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다음을 보라. J. J. Bimson, “Archaeological Data and the Dating of the Patriarchs,” in *Essays on the Patriarchal Narratives* (Ed. A. R. Millard & D. J. Wiseman; Winona Lake: Eisenbrauns, 1980), 53-89.

6.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앞의 책에 포함되어 있는 M. J. Selman, “Comparative Customs and the Patriarchal Age,” 91-139를 참조하라.

7. J. 맥스웰 밀러 & 존 H.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우리는 거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발견된 것도 소수이지만, 발견된 소수도 반드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증거의 부재가 곧 부재의 증거일수 없고, 역사의 침묵을 통해 논증하는 방식은 반드시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sup>8</sup> 하지만, 고대 근동에 대한 깊은 연구는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는 고고학의 실질적인 목표가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데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고고학의 임무를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한다.<sup>9</sup>

(1) 성경을 설명하는 것

(2) 우리의 역사와 지리에 본문의 사건들을 고정시키는 것

(3) 성경의 계시이든,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한결같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확신을 더하는 것

아울러 카이저는 고고학의 목표를 “고고학은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위치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10</sup> 이런 전제 위에 창세기 이야기를 실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즉 역사와

8. 월터 카이저, 『이스라엘의 역사- 청동기시대부터 유대전쟁까지』, 류근상 역 (서울: 크리스찬, 2003), 4-10. 카이저는 비평적 학자들의 다섯 가지 기본 전제들을 비판한다.

9. 그의 책, *The Old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 Releva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1). 98. 『구약성서 다큐먼트: 구약성서의 신뢰성과 적합성』, 김정봉 역 (서울: 세움과 비움, 2016)으로 번역 출판되었지만, 위 인용은 필자의 사역이다. 좀 더 자세히는 제 7장을 참조하라.

10. Walter Kaiser, *The Old Testament Documents*, 95.

지리 안에 어떻게 위치시키느냐는 실제 창세기 이야기를 더 실제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해 진다. 창세기의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이 어떻게 창세기 본문 이해에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다음 이야기가 될 것이다.

## 역사성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창세기 1-11장까지는 특정한 연대를 정할 수 없는 역사 이전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사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연대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 반면 창세기 12-50장까지는 족장 시대로서 대략적인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두 거대 단락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온다.

창세기1-11장: 창세기에 언급된 족장 시대 이전의 이야기는 소위 역사라는 범주에 집어넣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궁켈(Herman Gunkel)의 경우 자신의 책 제목을 ‘창세기의 전설들(The Legends of Genesis)’이라고 지을 정도로 역사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대표한다. 이점은 특히 창세기 1-11장을 다룰 때 두드러진다. 그래서 창세기 1-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에 있던 전설이나 신화들을 빌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의 창조신화에서 따 온 것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두키 티아맛을 죽이고 그 몸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홍수 설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신들 간의 우주적 전쟁에 대해서 암시하지 않는다. 몇몇 유사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바벨론의 창조 신화와 성경은 아주 짧은 유사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은 전

혀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창세기의 내용들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서 차용했다는 주장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다. 그것은 창세기가 포로기 혹은 포로 후기에 작성 혹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경 저자가 고대 근동 신화들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역사에 맞게 적용했다는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포로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압제하는 나라의 신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혼합했다는 가설은 당시 에스겔이나 에스라 등이 모든 형태의 혼합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sup>12</sup>

비록 창세기 1-11장이 역사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분명 역사적인 기록물이다. 후반부 족장시대에 잘 어울릴만한 ‘족보’라는 단어가 동일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창세기 1-11장은 족보라는 틀에서 조상으로부터 후손을 연결하고 있다. 역사서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모세는 창세기 1-11장을 기록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을 사용했으며(심지어 아담의 족보는 책으로 존재했다, 창 5:1)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

11. 고대 근동 신화들과 창세기와와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개론서는 존 D. 커리드, 『고대근동 신들과의 논쟁』, 이옥용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을 참조하라. 또한 존 N. 오스왈트는 바벨론의 창조신화와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성경이 바벨론 창조신화에서 빌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의 마르둑 이야기는 창조신화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말한다. 얼핏 보기에는 에누마 엘리쉬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누마 엘리쉬가 약 1000개의 라인을 가진 글인데, 그 중에 직접적으로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라인은 겨우 다섯 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John N. Oswalt, *The Bible among the Myths* (Grand Rapids: Zondervan, 2009), 99-103.

12. 고든 웬함, 『창세기 1-15』,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6), 61-62. 웬함은 창세기 1-11장 역시 시기적으로는 텔 엘 아마르나 시대 (주전 1400년) 이전의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출처가 메소포타미아였을 것이라는 웬함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창조와 홍수에 대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성경과 메소포타미아가 각각 후손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게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기록이나 숫자의 구체성은 모세가 어림잡아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역사 문서로서 기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창세기 12-50장: 전술한 바와 같이 족장들의 이름은 성경 외의 어떤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증거의 부재 즉 침묵으로부터 부재를 논증하는 것은 선부른 결론이다. 간단한 예로, 다윗의 이름 역시 1990년대 초반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이 다윗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1993년 텔 단에서의 발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젠 다윗의 이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마찬가지로 족장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 기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성경에는 절대 연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족장 시대의 연대는 그 이전에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족장 시대 이후의 기준점을 찾아서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족장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은 출애굽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출애굽 연대 자체가 끝나지 않는 논쟁 주제지만 여기서 이를 다룰 수는 없다.<sup>13</sup> 다만 이른 시기의 출애굽 연대를 채택하고 대략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자. 열왕기상 6장 1절에 따르면 솔로몬 즉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이라고 언급한다. 대략적으로 볼 때 출애굽의 연대를 약 1446년 정도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여

---

13.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주전 15세기의 이른 시기 출애굽 연대와 주전 13세기 늦은 시기의 출애굽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각각의 주장은 나름 성경과 고고학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른 시기의 출애굽 연대를 전제한다.



기에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430년을 더하면 주전 1876년이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해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215년 만에 애굽으로 갔으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입성한 해는 주전 2091년이 된다. 결국 아브라함의 출생은 주전 2166년이 되는 셈이다. 이를 기초로 창세기 족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의 연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14</sup>

2166	아브람의 출생	창 11:27
2091	아브람의 가나안 입성	창 12:4
2080	이스마엘 출생	창 16:16
2066	이삭 출생	창 21:2
2029	사라의 죽음	창 23:2
2026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창 25:20
2006	에서와 야곱의 출생	창 25:26
1991	아브라함의 죽음	창 25:7
1943	이스마엘의 죽음	창 25:17
1930	야곱이 하란으로 떠남	창 28:2
1923	야곱의 결혼	창 29:23, 28
1916	요셉의 출생	창 30:23
1899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	창 37:2
1886	이삭의 죽음	창 35:28
1876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감	창 46:6

14. 보다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Eugene H. Merrill, "Fixed Dates in Patriarchal Chronology," *Bibliotheca Sacra* (1980), 241-51.

성경의 기록에 근거한 족장들의 연대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성경의 언급들이 어느 정도 성경 외적인 자료와 관련해서 뒷받침될 수 있을까?

## 족장 시대 이름들

일반적으로 이름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족장들의 이름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유추하는데 다소간 도움이 된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이름들 중에 가장 자주 보이는 패턴은 히브리어 요드로 시작하는 이름들이다(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등). 보통은 아모리족 미완료형(Amorite imperfective)으로 통칭하는데, 이런 이름들은 주전 18세기경의 마리 문서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었다. 케네스 키친(Kenneth A. Kitchen)에 따르면 주전 2천년기 초반에 해당되는 6,000명의 사람 이름 중 16%가 아모리족 미완료형 요드로 시작하는 이름들이었고, 이 수치는 요드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들 중에서 약 55%에 해당된다. 약 500여년이 지난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12%로 줄었고, 이것은 또한 요드로 시작하는 이름들 중에서는 25-30% 정도다. 주전 1천년대 앗시리아 문헌들에서는 겨우 1.6%만 이에 해당되고, 요드로 시작하는 이름들 중에서는 12%에 국한된다. 역사를 통해 족장들의 이름과 유사한 패턴의 이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빈도수로 볼 때, 창세기의 인물들의 연대적 배경이 주전 2천년대 초(중기 청동기 시대)였다고 말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받아들일 만한 결

## 노예의 값

고대의 문서들에는 지속적으로 노예들이 거래되던 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성경에도 노예의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창세기의 역사적인 무대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노예의 값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37장 28절이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렸다. 그리고 약 400여년이 지난 다음 모세는 출애굽기 21장에서 노예의 값과 관련된 규례를 기록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출 21:32)

이 규례는 소가 종을 받아서 종이 죽었을 경우 소는 반드시 죽이되, 종은 주인의 재산이므로 종에 대한 비용으로 30세겔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출애굽 시대는 종의 값을 30세겔로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곳은 열왕기하 15장 19-20절이다.

앗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

---

15. Kenneth A.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dermans, 2003), 341-43.

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들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앗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북 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은 앗수르 왕 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대로 은 50세겔씩 바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었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은 50세겔은 주전 8세기경 앗수르가 책정해 둔 노예의 값에 준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노예의 값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고고학적인 자료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sup>16</sup>

자료	시대	종의 값	성경 기록
수메르/아카드	주전 24-21세기	10-15 세겔	
고대 바벨론 마리 문서	주전 19-18세기	평균 20 세겔	창 37:28 요셉
누지 문서 우가릿 문서	주전 15-13세기	30 세겔	출 21:32 종의 값
앗시리아	주전 8-7세기	50-60 세겔	왕하 15:20 앗수르에 지불한 값
페르시아	주전 5-4세기	90-120 세겔	

시대에 따라 변화했던 종의 값을 비교할 때, 창세기가 위치했던 역사적인 자리는 비평학자들이 말하듯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만들어 냈다면 종의 값에 대해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록했을 개연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16.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344-45. 보다 자세하게는 키친의 다음 글도 참조하라. "The Patriarchal Age: Myth or History?"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1.2 (1995): 48-57.

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기록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달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종의 가치를 반영한 반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동일한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고대로부터 전달되어왔던 기록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는 주전 2천년대 초기의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 정치적 배경

창세기가 위치하고 있는 정치적 배경은 크게 둘로 나뉘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메소포타미아와의 관련성인데 이는 주로 창세기 14장과 관련된다. 둘째는 족장들이 자주 접촉했던 이집트와 관련된다.

창세기 14장에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왕들의 연합과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남방 왕들의 연합,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심이 된 지역 세력들 간의 연합 이야기가 등장한다. 가나안 땅에서 도시국가 형태가 오랫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정치적 상황으로 특정 시기를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연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된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주전 3천년기 말까지 우르 문명에 의해 통치되다가, 우르가 엘람에 의해 멸망한 이후부터는 고대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할 때까지 약 250여 년 간은 도시 국가 형태로 존재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북방 왕들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다. 이들의 정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각각의 도시 국가로 존재하면서 목적에 따라 서로 연합하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함무라비가 메소포타미아에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한 이후의 메소포타미아는 도시 국가와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함무라비와 앗시리아의 삼시아다드 1세는 당시 모든 도시 국가를 복속시켰으며,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바벨론과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두 제국에 의해 움직여 왔다. 주전 1천년기 아시리아-바벨론-페르시아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은 창세기 14장이 언급하는 도시 국가의 연합이라는 개념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14장이 말하는 정치적, 지리적 정보는 창세기의 역사적 무대가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주전 1천년기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국가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또 연합할 수 있었던 시기인 주전 2천년기 초기, 즉 우르 제 3왕조의 멸망 이후 약 250여 년간을 반영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sup>17</sup>

이집트의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추론해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창세기의 족장들은 여러 차례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했고(창12:10-13:1), 아버지처럼 이삭 역시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다(창 26:1-6). 결국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정착했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창45-47장). 이스라엘은 나일 강 동쪽 삼각주에 위치한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족장시대와 연결된 이집트의 12-13 왕조의 왕들이 나일 강 삼각주 지역에 궁전을 짓고 이집트를 통치했다. 그 뒤를 이었던 힉소스 왕조 역시 나일 강 동부 삼각주 지역에 있는 아바리스를 수도로 삼고 통치했다.

---

17. 주전 2천년기 초의 고대 근동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마르크 반 드 미에를, 『고대 근동 역사』, 김구원 역 (서울: CLC, 2010)의 제 4장을 참조하라. 케네스 키친은 고대 바벨론 시대 이전이 창세기 14장을 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K. A. Kitchen,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Chicago: InterVarsity, 1966), 43-47. 도시 국가 간의 연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한다.

그런 반면, 히소스를 몰아냈던 18왕조부터는 그 수도를 멤피스 지역으로 옮겼다. 족장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다는 말은 아마도 창세기의 역사적인 무대가 나일강 삼각주 유역을 중심으로 변성했던 이집트 왕조 시대와 서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사회적 배경

그렇다면 족장들이 생활하는 사회적 배경은 과연 주전 2천년기 초반의 사회상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을까? 20세기 이전에도 사회적 관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특별히 20세기 초 티그리스 강변에서 약 2만여 토판이 누지에서 발견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족장들의 사회적 관습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누지 문서에 기초해서 학자들은 창세기의 다양한 사건들이 누지 문서의 사회 관습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누지 문서의 연대가 주전 15세기 정도이기 때문에 G. E. 라이트(G. E. Wright) 등은 족장들의 연대를 14-15세기로 주장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 안에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족장들의 연대를 더 이른 시기로 잡는 것에 문제는 없다. 이런 주장은 그 후에 발견된 마리 문서에서 좀 더 뒷받침 된다. 마리 문서는 주전 18세기의 토판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마리와 누지가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족장 시대 이야기와 고대 근동 문헌 사이의 관습적 유사성은 총 14 군데 정도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아내는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할 수 있었다. 이는 창세기 16장에서 사래가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

어 아들을 낳게 하는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자식이 없는 경우 주인은 자신의 집에서 키운 종 가운데 하나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한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아브람은 자식 없이 죽을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선택으로 종을 양자로 입양하려 한 것이다.
- 누지 문서에는 양 세 마리로 장자권을 구입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는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팔죽을 제공하고 장자권을 산 것과 관련된다.
- 누지 문서에는 장자에게 두 배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것인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와 연결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창세기 내에서 장자에게 두 배의 유산을 상속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는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 사이의 율법이나 관습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 누지 문서에는 드라빔에 대한 언급이 많다. 드라빔은 집안에 있는 작은 신상으로 이를 소유한 사람이 상속권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라헬이 급히 도망치면서도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서 떠난 사실과, 라반이 열흘 동안 추격하여 드라빔을 찾으려 했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가던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상속권과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한 가지 풍습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누지 문서에서 등장하는 관습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창



12:10-13:1; 20:1-18; 26:1-11). 이렇게 함으로 족장들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고, 단지 관습을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지만, 사실 누지 문서에서 유사점들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sup>18</sup> 누지 문서에 간단하게 언급된 몇몇 제한된 표현만으로 성경 안에서 유사성을 찾고 주장을 세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을 너무 빨리 성경 이야기의 배경으로 주장하게 될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를 정확히 복원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언급한 몇몇 사례들을 가지고 창세기 이야기의 연대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내-여동생 이야기가 가진 고대근동과의 유사성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누지 문서와의 연결성이 비판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관습적 유사성들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의 한 무대 위에 있었고, 그 시대는 중기 청동기 시대, 즉 주전 2천년대 초반에 위치해 있었음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거가 된다.

## 창세기와 모세 율법

앞에 언급된 바와 같이 창세기는 여러 면에서 모세 시대의 관습과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다. 단순히 노예의 값의 차이 정도만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가 시내산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

18.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Hwagu Kang, *Reading the Wife/Sister Narratives in Genesis: A Textlinguistic and Type-Scene Analysis* (Eugene: Pickwick Publishers, 2018), 11-

첫째, 야곱은 자매인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했는데(창 29:21-30), 이는 명백하게 레위기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레 18:9, 11, 18). 아브라함도 이복누이와 결혼했다고 증언 한다(창 20:12).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주장은 모세 시대에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창세기에는 이방 결혼이 종종 언급된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으며, 요셉도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 어쨌든 족장들의 역사에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3절의 규례를 어기는 언급이 나와 있다.

셋째,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신명기 21장 15-17절은 장자에게 갑절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창세기는 종종 신명기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창세기 49장은 장자권과 관련된 르우벤이나 유다 등에게 두 배의 유산을 약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창세기는 자주 차자 우선의 원리를 구두로 실행한다.

넷째, 창세기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종교적인 관습들은 모세 시대는 물론 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행되기 어려웠을 내용을 반영한다. 이는 다 음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질 내용이다.

## 종교

창세기의 족장들이나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정한 양식들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들은 모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십일조를 드렸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관습

들은 확실히 모세 시대 이후의 관습들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도 창세기에 바알 신앙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이나 암시도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바알 신앙은 모세 시대에 가나안을 중심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서에서는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창세기는 바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창세기의 저자가 후대의 인물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점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당시 가장 중요하고 유명했던 바알 신앙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말이다.

창세기에서 벤엘은 가장 거룩한 장소들 중의 하나다. 벤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벤엘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민족적 성지와도 같은 벤엘은 후일 여로보암 2세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표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후세대 인물이 창세기를 만들어 냈다면 벤엘이라는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묘사하는 일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아울러 족장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예루살렘의 중요성이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후일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후대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창세기 족장들의 독특한 예배의식들이 있다. 그들은 자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이동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주 상수리나무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게다가 족장들은 곧잘 나무를 심거나 돌을 세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한다. 야곱은 벤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모세 시대에 이르러 나무 아래에서 예배하거나 돌이나 나무를 세우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

었다(신 12:2-3).

이런 점들은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후대의 저자들이 자신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회적, 종교적 관습을 행하는 조상들의 모습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한다. 반대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오래 전에 이미 기록된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고 진행시켰음에 틀림없다.

이상의 예들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듯 단순히 후대의 편집물 혹은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대신 주전 2천 년대 초(중기 청동기 시대, BC 2000~1500)에 실재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몇몇 부분은 주전 2천 년대의 이야기일 수 없고 오히려 후대의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소위 시대착오적인 표현들이다.

## 시대착오적 표현(anachronism)?

반 시터스와 같은 비평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시대착오적인 표현들을 주목하면서 창세기 저작이 모세 시대일 수 없는 증거로 사용한다. 과연 그러한지 몇 가지만 살펴보자.

###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을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한다(창 11:28, 31; 15:7). 역사적으로는 갈대아라는 용어가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과 연결해서 나타나는 것은 신바벨론 제국의 발흥 이후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를 갈대아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일견 보기에 이 표현은 창세기의 기록이

포로기 전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표현 자체로 시대를 논증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대적 업데이트 혹은 주석적 설명의 추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르는 주전 3천년기 말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웠던 도시였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르보다 갈대아라는 말로 더 잘 알려졌을 것이기에, 후대 성경의 기록/편집자가 아브라함의 고향을 우르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이 현재의 갈대아라고 설명하기 위해 덧붙인 후대의 첨가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단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단 지역까지 올라갔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 지역은 명백하게 사사시대에 이름 지어진 곳이다(삿 18:29). 원래 이름은 라이스라는 곳이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해서 정착함으로써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개명한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단이 언급된 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다. 이것도 앞에 언급된 ‘갈대아’라는 용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종 업데이트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곳을 더 이상 라이스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명으로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낙타

창세기 족장들은 자주 낙타를 집에서 기르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창 12:16; 24:10-64; 30:34; 31:17, 34; 32:7, 15; 37:25). 고대 근동에서 낙타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유익한 동물로 간주되어 왔다. 주전 3

천년기부터 낙타의 뼈가 발견되고는 있지만, 낙타는 주전 12세기까지는 집에서 길러졌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주전 7-8세기가 되어서야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W. F. 올브라이트조차도 아브라함은 낙타가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상업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고 결론지었다.<sup>19</sup> 하지만 낙타의 뼈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북부 시리아와 심지어 수메르 지역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고고학적 발견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우리는 낙타가 주전 18세기 아라라 지역에서 가축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중기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sup>20</sup> 아직 낙타에 대한 발굴이 잘 진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평학자들의 결론은 성급한 감이 있다. 아마도 낙타는 주전 2천 년대 이전부터 제한적으로 가축으로 기능했을 것인데, 그것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니 족장 시대에는 소수의 부자들만이 낙타를 가축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낙타가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주전 1천 년대로 미뤄야 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각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가 이방 왕

---

19. William F. Albright, "Abram the Hebrew: A New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63 (1961), 38. 주전 7-8세기를 주장하는 Van Seters의 글은 John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17.

20.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338-39; John J. Davis, "The Camel in Biblical Narratives," in *Tribute to Gleason Archer* (ed. Walter C. Kaiser, Jr. and Ronald F. Youngblood; Chicago: Moody Press, 1986), 141-52; Wayne Horowitz, "Sweeter Than Camel's Milk: The Camel in Sumerian, the Bactrian Camel in Genesis?" *Bible Lands e-Review* (2014):1-9.

아비멜렉을 만났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창 21:32), 창세기 26장 1절에서 이삭이 만난 그랄 왕 아비멜렉은 보다 직접적으로 블레셋 왕이라고 언급된다. 일반적으로 블레셋은 주전 12세기 경 그리스에게 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해상 민족들이 시리아와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대거 이동했고, 이 과정에 가나안 땅의 다섯 도시들(가자, 아스글로, 예글론, 아스돗, 갓)에 정착한 민족들을 이르는 말이다.<sup>21</sup> 이후 블레셋은 성경에서 250여회 등장하지만 대부분 블레셋에 정착했던 해양 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 창세기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뭔가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진다. 주전 12세기 이후의 거의 모든 본문이 다섯 도시에 정착한 바로 그 블레셋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에 언급된 블레셋이 반드시 그 민족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블레셋이라고 통칭하기는 하지만,에게 해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있었고,에게 해 쪽으로부터 넘어온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는 다른 소수 민족들 중의 일부가 블레셋이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22</sup> 그렇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주전 12세기에 지중해 해안 지역에 정착했던 블레셋과는 다른 존재들이었을 것이다. 실제 주전 3천 년대부터 가나안 지역과에게 해 지역이 서로 접촉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자료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블레셋 왕은 지중해 연안의 다섯 도시들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도록 한다. 결국 블레셋이라는 명칭이 창세기에 등장한다는 사

21. 람세스 III가 해양민족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해낸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메디넷 하부에 있는 그의 신전 벽에 아주 자세하게 그려진 해양 민족들과의 전투 장면을 볼 수 있다. 주전 1175년의 일이다.

22.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340-41; 고든 웬합, 『창세기 16-50』, 윤상문, 황수철 역(서울: 솔로몬, 2001), 351.

실 만으로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후대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비록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적인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지게 된 한 두 조각의 발견으로 과거를 단순하게 확정하는 오류도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본문과 현재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성경 외적인 자료들을 종합할 때 창세기는 주전 2천 년대 초에 가나안 지역에서 살았던 족장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 모세 시대의 관점에서 창세기 읽기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창세기에 언급된 사건들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무대를 찾았다면, 이제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다. 창세기의 독자는 족장들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그와 함께 출애굽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고,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독자들에게 특별한 시각을 요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눈으로 창세기가 읽혀졌고 이해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 서지 않는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속



밖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애굽 온 땅에 흑암을 내리실 때 자신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는 창세기의 모습을 볼 때 무릎을 치며 감격했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애굽과 구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낮과 밤으로 구분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람이 각종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람의 경험이 곧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느꼈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야곱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놀랐을 것이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아닌가! 야곱의 장례 행렬은 당시 안전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 길을 지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야곱의 장례식을 위해 온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할 뿐만 아니라 행렬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전 조상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길을 지나고 있음에 감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과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창세기는 출애굽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적실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광야의 여정을 걷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21세기의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창세기는 신실하게 백성들을 살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 성경 연구

B i b l i c a l   S t u d i e s